

한국 아동의 거짓말 유형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반응의 발달

권 은 영 이 현 진*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거짓말 유형(반사회, 선의, 유희)에 대한 이해, 이에 따른 도덕적 판단, 부정적, 긍정적 정서반응이 연령(만 5, 6, 7세, 성인)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거짓말에 대한 이해는 모든 연령에서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다른 유형의 거짓말보다 더 잘 이해했다. 그러나 선의나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5, 6세는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의 이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7세는 선의의 거짓말을 유희적 거짓말보다 더 잘 이해했다. 한편, 성인은 반사회와 선의의 거짓말을 유희적 거짓말보다 더 잘 이해했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서 5, 6세는 세 유형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7세는 반사회와 유희적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보다 더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했다. 성인은 반사회적 거짓말을 가장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했고, 그 다음 유희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의 순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했다. 정서반응에서 5, 6, 7세는 모든 유형의 거짓말에서 부정적, 긍정적 정서반응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인은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보다 반사회적 거짓말에서 미안하다는 부정적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였으며,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에서 기쁘다는 긍정적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짓말에 내재된 의도의 종류에 따라 거짓말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더 나아가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달라짐을 시사한다.

주요어: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반응

인간은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통을 통해 세상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다.
살아가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언어적 의사소 따라서 우리는 타인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직

* 이 논문은 권은영(2011)의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였음.

* 교신저자: 이현진, E-mail: hjlee@ynu.ac.kr

접 경험하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만약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예가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Kant는 진실이 아닌 의도적으로 하는 모든 말을 거짓말이라 정의하며,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절대적인 의무라고 하였다(이남원, 1998, pp. 27-42에서 재인용). Bradshaw(1990)는 거짓말을 기만적인 관계의 징후라고 정의했다. Bok(1978)도 의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또한 의도가 좋던 나쁜 상관없이 진실이 아닌 말을 거짓말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속이는 것인가 아닌가의 측면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utilitarian) 관점도 있다. 즉,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대인관계적인 거짓말은 권장되기도 한다(Nyberg, 1993). Grice(1975)와 Sweetser(1987)는 화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다는 화자가 협력의 원리(cooperative rule)에 따라 말했는지에 따라 거짓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협력의 원리란 화자가 청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원리를 따르면서 언어를 산출함을 의미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화자가 청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실수로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이러한 말은 거짓말에 해당되지 않는다. Aquistine도 거짓말을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농담처럼 즐거움을 위해 하는 거짓말, 남을 속여서 해를 끼치려는 거짓말로 나누었다(손은

경, 2001, pp. 18-19에서 재인용). 이들에 따르면, 모든 거짓말이 부도덕이나 신뢰 손상을 가져오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다양한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Peck, 1978). 그렇다면 아동은 거짓말의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또한 아동이 이러한 거짓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지 능력이 필요할까?

거짓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거짓말에 내재된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도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해되는 마음의 구성요소이다. 6개월 된 영아들도 도움을 주는 행위자와 방해하는 행위자를 구별할 수 있고, 방해하는 행위자보다 도움을 주는 행위자를 선호한다(Kuhlmeier, Wynn, & Bloom, 2003; Premack & Premack, 1997). 14개월 된 영아들은 언어적 단서를 통해 행위자의 행동이 의도적인 것인지, 우연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의도적인 행동을 더 많이 모방한다(Carpenter, Akhtar, & Tomasello, 1998). 2세 아동들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 의도를 추론하여 행동의 좋고 나쁨에 대해 언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Bretherton & Beeghly, 1982). 또한 3세 아동들은 사실과 다른 말을 들었을 때 의도가 없는 단순한 말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Siegal & Peterson, 1996, 1998).

이처럼 의도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은 아주 일찍 나타나지만, 거짓말을 이해할 때 의도를 고려하는 능력은 다소 늦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Piaget(1932)에 따르면 6~10세 아동들은 사실이 아닌 말을 거짓말이라고 정의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거짓말과 비의도적인 거짓말을 구별하지 못하다가, 10세 이후에야 의도적인 거짓말을 거짓말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10세 이하의 아동은 행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에 의존하는 도덕 판단, 즉 도덕적 실재론(moral

realism)적인 기준에서 도덕적 선악을 판단하는 반면, 10세 이상의 아동은 의도에 기초하는 도덕 판단, 즉 도덕적 주관주의(moral subjectivity)적 기준에서 도덕적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나이든 아동들만이 거짓말을 판단할 때 의도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안함으로써 Piaget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Peterson, Peterson, & Seeto, 1983; Strichartz & Burton, 1990). 예를 들어, Strichartz와 Burton (1990)은 6세 아동들도 거짓말과 사실을 구분할 때 진술의 사실성과 청자를 속이려는 화자의 의도 뿐만 아니라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까지 고려한다고 보고하였다. Peterson 등(1983)은 5~11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거짓말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구성요소가 아니라, 속이려는 거짓말의 의도(예, 선의의 거짓말, 자기 보호적 거짓말)에 따라 거짓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상대방을 속이려 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거짓말뿐 아니라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도 있다. 거짓말은 내재된 의도의 종류에 따라 반사회적 거짓말(antisocial lie), 선의의 거짓말(white lie), 유희적 거짓말(trick lie)로 구별될 수 있다 (Bussey, 1992, 1999; Peterson, Peterson, & Seeto, 1983). 반사회적 거짓말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감추려 하거나 벌을 피하려 하거나 남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자기 방어적인 성질을 가진다. 선의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 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는 거짓말이다. 또한, 유희적 거짓말은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재미로 하는 거짓말로써 도덕적 책임이 별로 없고 실질적인 이득 없이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Bussey, 1999; Newton, Reddy, & Bull, 2000). 많은 연구들은 세 유형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반응을 통해 아동이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한 그 이해가 어떤 발달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연구들은 반사회적 거짓말을 이해하는 것이 선의나 유희적 거짓말보다 비교적 일찍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Bussey(1999)는 4, 8, 11세 아동들에게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을 들려주고, 그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4세 아동들도 반사회적 거짓말은 나이든 아동들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잘 이해했다. 반면에 선의나 유희적 거짓말의 이해는 8세와 11세 아동들보다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8세 이후가 되면 세 종류의 거짓말을 이해하는 정도가 모두 90%이상으로 증진되었다. 반사회적 거짓말이 일찍 이해된다는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도 반복 검증되었지만(박영아, 2008; 손은경, 2001),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6, 8,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영아(2008)의 연구에서 8세 아동들은 선의의 거짓말은 잘 이해했지만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많은 오류를 범했다.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수행은 10세 이후가 되어야 다른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 증진되었다. 또한 5, 8,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손은경(2001)의 연구에서는 5세 아동들은 유희적 거짓말은 잘 이해하였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잘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8세 이후가 되면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을 반사회적 거짓말만큼 잘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하여서도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Bussey(1999)의 연구에서 4, 8, 11세 아동들에게 반사회적 거짓

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게 하였을 때, 대체로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세 유형의 거짓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거짓말 종류에 따라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달랐다. 반사회적 거짓말을 가장 나쁜 것으로 그 다음에는 유희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의 순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 특이할 점은 11세 아동들도 선의의 거짓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Walper와 Valtin(1992)은 6, 8,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만을 살펴보았는데, 6세와 8세 아동들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한 반면, 10세 아동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세 유형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일관되지 않았다. 5~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미정(2005)은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부정적 판단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박영아(2008)에서 6세와 8세 아동들은 세 유형의 거짓말을 모두 부정적으로 판단하지만, 10세 아동들은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고 ‘보통이다’ 라는 반응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세 유형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연구마다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모든 연구에서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은 부정적으로 판단되었지만,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연구마다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거짓말을 한 후에 갖게 되는 정서는 개인의 도덕적 기준이 내면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Bussey(1999)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거짓말을 했을 때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 정서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중 어떤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아동에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4, 8, 11세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선의나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를 보이지 않았고, 반사회적 거짓말에서만 미안하다는 부정적 정서를 보고했다. 긍정적 정서반응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세 유형의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8세와 11세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서반응과 관련하여서도 후속 연구들은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선미정(2005)은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겁이 난다는 부정적 정서반응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지만,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반응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긍정적 정서반응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만 나타났고,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짓말에 대한 이러한 정서반응 패턴은 5~9세의 모든 연령에서 비슷하여 연령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박영아(2008)는 6, 8, 10세 아동들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걱정된다는 부정적 반응을 주로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6세와 8세 아동들은 부정적 정서를 주로 보였지만, 이러한 정서가 10세 아동들에게서는 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반응과 관련하여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서 반응이 적어졌고,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서는 긍정적 정서 반응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거짓말을 살펴본 연구들은 세 유형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그리고 정서반응에 있어 저마다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발달적 변화와 관련하여서도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5, 6, 7

세와 성인을 대상으로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 거짓말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도덕적 판단은 어떠한지,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 어떤 정서반응을 보이는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반응 패턴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실험은 경북 G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연령범위: 5년 2개월~5년 11개월, 평균연령: 5년 6개월) 아동 20명(남: 8명, 여: 12명)과 만 6세(연령범위: 6년 2개월~6년 6개월, 평균연령: 6년 3개월) 아동 20명(남: 12명, 여: 8명),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7세(연령범위: 7년 0개월~7년 10개월, 평균연령: 7년 4개월) 아동 20명(남: 9명, 여: 11명), Y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20명(남: 10명, 여: 10명)으로 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및 점수화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각 거짓말 유형에 대한 이해, 그에 따른 도덕적 판단과 정서반응 과제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에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때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 상황을 묘사하는 그림을 노트북으로 제시해 보여주었다. 거짓말 상황이 묘사된 장면은 거짓말의 유형별로 3개씩 총 9개의 이야기와 관련된 장면을 보여주었다. 각 거짓말 유형의 이야기는 Happé(1994)와 Bussey(1999)가 사용한 이야기를 한국 아동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거짓말 유형에 따른 이야기의 예는 부록과 같다(부록 참조).

거짓말에 대한 이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검사지에 기록하였다. 이 때 아동이 거짓이라고 답하면, 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이에 대한 아동의 반응 또한 함께 기록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반응은 Badenes, Estevan과 Bacete(2000)의 측정 기준을 토대로 점수화하였다. 아동이 사실이라고 답하였을 때는 0점, 거짓이라고 답하였으나, 거짓말을 한 이유를 모른다고 하거나 무반응이었을 때는 1점, 거짓이라고 답하였으나,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때는 2점, 거짓이라고 답하였고, 거짓말의 의도와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명했을 때는 3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각 거짓말 유형에 대한 이해 질문에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0~9점이었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한 말(예, “제가 깨뜨리지 않았어요. 운수가 깨뜨린 거예요.”)에 대하여 얼마나 잘했는지 또는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Lee, Cameron, Xu, Fu와 Board(1997)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척도 방식의 얼굴 그림을 제시하였다. 즉,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예, 찡그리고 우는 얼굴),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예, 약간 찡그린 얼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지(예, 무표정한 얼굴), 조금 잘했다고 생각하는지(예, 약간 밝은 얼굴), 많이 잘했다고 생각하는지(예, 아주 밝게 웃는 얼굴)를 5개의 그림을 제시하여 아동이 거짓말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잘했는지 또는 잘못했는지를 얼굴표정 중에서 선택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찡그리고 우는 얼굴을 선택했을 때는 1점, 약간 찡그린 얼굴은 2점, 무표정한 얼굴은 3

점, 약간 밝게 웃는 얼굴은 4점, 아주 밝게 웃는 얼굴을 선택했을 때는 5점을 부여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거짓말에 대해 좋게 평가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거짓말을 나쁘게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각 거짓말 유형에 대한 도덕적 판단 질문에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15점이었다.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반응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Bussey(1992, 1999)가 사용한 Likert식 척도 방식의 막대 그림을 제시하였다. 막대는 0cm(걱정되거나 속상하지 않다), 2cm(조금 걱정되거나 속상하다), 4cm(많이 걱정되거나 속상하다), 6cm(아주 많이 걱정되거나 속상하다) 길이의 4개의 막대 그림을 제시하여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거짓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의 정도를 아동에게 추측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선택한 막대 그림에 대해 0cm에는 1점을, 2cm 막대는 2점으로, 4cm 막대는 3점으로, 그리고 6cm 막대는 4점을 부여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주인공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느낀다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각 거짓말 유형에 대한 부정적 정서반응 질문에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12점이었다.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Bussey(1992, 1999)가 사용한 Likert식 척도 방식의 막대 그림을 제시하였다. 막대는 0cm(기쁘거나 즐겁지 않다), 2cm(조금 기쁘거나 즐겁다), 4cm(많이 기쁘거나 즐겁다), 6cm(아주 많이 기쁘거나 즐겁다) 길이의 4개의 막대 그림을 제시하여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거짓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정서의 정도를 아동에게 추측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선택한 막대 그림에 대해 0cm에는 1점을, 2cm 막대는 2점으로, 4cm 막대는 3점으로, 그리고 6cm 막대는 4점을 부여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주인공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느낀다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각 거짓말 유형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 질문에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12점이었다.

실험 절차

실험은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Y대학교 실험실에서 개별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아동에게 세 가지 유형의 거짓말 과제를 뒤섞어서 균형을 맞춘 순서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부정적 정서반응, 긍정적 정서반응의 네 가지 질문은 위와 같이 고정된 순서로 질문하였다. 실험은 한 번에 모든 과제를 실시하였지만,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아동이 지루해하면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어 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결 과

거짓말에 대한 이해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라 거짓말 이해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정리하였다. 각각의 거짓말 유형에 대한 이해에서 개별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0~9점 사이였다.

변량분석 결과, 연령($F(3, 76) = 37.21, p <$

.001)과 거짓말 유형($F(2, 152) = 69.21, p < .001$)의 주효과 및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F(6, 152) = 6.61, p < .001$)가 유의미하였다. 연령의 주효과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실시 결과, 5세와 7세($p < .05$), 5세와 성인($p < .05$), 6세와 7세($p < .05$), 6세와 성인($p < .05$), 7세와 성인($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5세와 6세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5, 6세와 7세 사이의 수행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짓말 과제 유형의 주효과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증 실시 결과,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5$),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름을 시사해준다.

연령과 거짓말 과제 유형 간의 상호작용이 그림 1에 제시되어있다. 각 연령에서 거짓말 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연령에서 거짓말 유형 이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5세: $F(2, 38) = 28.36, p < .001$, 6세: $F(2, 38) = 15.13, p < .001$, 7세: $F(2, 38) = 22.33, p < .001$, 성인: $F(2, 38) = 14.67, p < .001$). 어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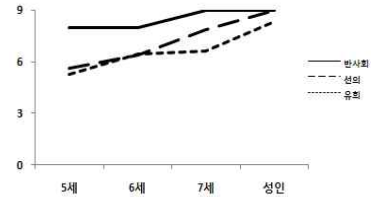


그림 1. 거짓말 이해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의 다중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5세와 6세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5$),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반사회적 거짓말을 선의나 유희적 거짓말 보다 더 잘 이해했음을 시사해준다. 7세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5$),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반사회적 거짓말을 가장 잘 이해하였고, 그 다음에 선의의 거짓말, 그리고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이해했음을 시사해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의 이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5, 6세와는 달리, 선의의 거짓말을 유희적 거짓말보다 더 잘 이해했음을 시사해준다. 성인은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을 유희적 거짓말보다 더 잘 이해했음을 시사해준다.

표 1. 거짓말 이해의 평균과 표준편차(괄호)

	5세	6세	7세	성인
반사회	7.95 (1.46)	7.95 (1.19)	9.00 (0.00)	9.00 (0.00)
선의	5.60 (1.09)	6.35 (1.18)	7.85 (1.42)	8.95 (0.22)
유희	5.25 (1.68)	6.40 (1.09)	6.60 (1.69)	8.30 (0.80)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정리하였다. 각각의 거짓말 유형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서 개별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15점 사이였다. 점수가 15점에 가까울수록 거짓말을 잘한 행동으로, 3점에 가까울수록 거짓말을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변량분석 결과, 연령($F(3, 76) = 21.92, p < .001$)과 거짓말 유형($F(2, 152) = 65.42, p < .001$)의 주효과 및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F(6, 152) = 12.34, p < .001$)가 유의미하였다. 연령의 주효과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실시 결과, 5세와 성인($p < .05$), 6세와 성인($p < .05$), 7세와 성인($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5, 6, 7세에서의 수행은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거짓말 과제 유형의 주효과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증 실시 결과,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5$),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회적 거짓말($p < .05$), 선의의 거짓말과 유회적 거짓말($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회적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서로 다름을 시사해준다.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이 그림 2에 제시되어있다. 각 연

표 2. 도덕적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괄호)

	5세	6세	7세	성인
반사회	5.40 (1.50)	4.85 (1.38)	3.90 (1.20)	5.75 (1.65)
선의	6.80 (2.41)	5.80 (2.87)	8.35 (3.66)	12.60 (1.84)
유회	6.55 (2.54)	7.00 (2.69)	5.40 (1.60)	9.45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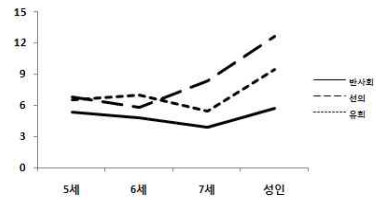


그림 2. 도덕적 판단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령에서 거짓말 유형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5세와 6세는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7세 ($F(2, 38) = 17.37, p < .001$)와 성인 ($F(2, 38) = 120.03, p < .001$)은 거짓말 유형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어느 유형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의 다중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7세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5$), 유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회적 거짓말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반사회와 유회적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보다 더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해준다. 성인은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5$),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회적 거짓말($p < .05$), 선의의 거짓말과 유회적 거짓말($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반사회적 거짓말을 가장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했고, 그 다음에 유회적 거짓말,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 순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해준다.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반응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정리하였다. 각각의 거짓말 유형에 대한 부정적 정서반응에서 개별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12점 사이였다. 점수가 12점에 가까울수록 거짓말을 미안한 행동으로, 3점에 가까울수록 거짓말을 미안하지 않은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변량분석 결과, 연령($F(3, 76) = 18.03, p < .001$)과 거짓말 유형($F(2, 152) = 18.65, p < .001$)의 주효과 및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F(6, 152) = 6.64, p < .001$)가 유의미하였다. 연령의 주효과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실시 결과, 5세와 성인($p < .05$), 6세와 성인($p < .05$), 7세와 성인($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5, 6, 7세에서의 수행은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거짓말 과제 유형의 주효과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증 실시 결과,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5$),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보다 반사회적 거짓말에서 부정적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였음을 시사해준다.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대한 부정적 정서반응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이 그림 3에 제시되어있다.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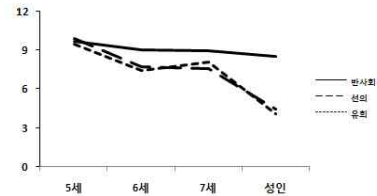


그림 3. 부정적 정서 반응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연령에서 거짓말 유형에 따른 부정적 정서반응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5, 6, 7세는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반응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성인($F(2, 38) = 66.06, p < .001$)에서만 거짓말 유형에 따른 부정적 정서반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어느 유형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의 다중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성인은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5$),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보다 반사회적 거짓말에서 미안하다는 부정적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였음을 시사해준다.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정리하였다. 각각의 거짓말 유형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에서 개별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12점 사이였다. 점수가 12점에 가까울수록 거짓말을 기쁘고 즐거운 행동으로, 3점에 가까울수록 거짓말을 기쁘고 즐겁지 않은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 부정적 정서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괄호)

	5세	6세	7세	성인
반사회	9.70 (2.31)	9.05 (2.66)	8.95 (2.30)	8.55 (1.79)
선의	9.90 (1.68)	7.75 (3.17)	7.60 (3.31)	4.45 (1.23)
유희	9.45 (2.16)	7.40 (2.85)	8.05 (2.38)	4.10 (1.33)

변량분석 결과, 연령($F(3, 76) = 8.54, p < .001$)과 거짓말 유형($F(2, 152) = 16.94, p < .001$)의 주효과 및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F(6, 152) = 8.35, p < .001$)가 유의미하였다. 연령의 주효과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실시 결과, 5세와 7세($p < .05$), 6세와 7세($p < .05$), 성인과 7세($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5, 6세와 7세 사이의 수행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짓말 과제 유형의 주효과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증 실시 결과,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5$),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에서 긍정적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였음을 시사해준다.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이 그림 4에 제시되어있다. 각 연령에서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5, 6, 7세는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성인($F(2, 38) = 32.30, p < .001$)에서만 거짓말 유형에 따른 긍정적 정서반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어느 유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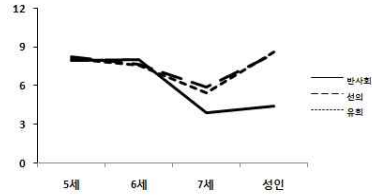


그림 4. 긍정적 정서 반응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의 다중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성인은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5$),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에서 기쁘다는 긍정적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였음을 시사해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 유형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반응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거짓말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5세와 6세는 반사회적 거짓말을 거짓말로 이해한 반면에, 선의나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이해를 보였다(반사회 > 선의, 유희). 이에 반해 7세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지만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보다 다소 낮았고,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보다는 높았다(반사회 > 선의 > 유희). 성인 집단에서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가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보다 약간 높았다(반사회, 선의 > 유희).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참여한 아동들의 연령이

표 4. 긍정적 정서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괄호)

	5세	6세	7세	성인
반사회	7.95 (2.54)	8.00 (2.93)	3.90 (1.58)	4.40 (1.63)
선의	8.25 (2.88)	7.65 (2.81)	5.90 (3.11)	8.45 (2.13)
유희	8.10 (3.02)	7.60 (2.56)	5.45 (2.50)	8.65 (2.20)

다르기에 제한점을 갖는다. 하지만 비슷한 연령대만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Bussey(1999)에서도 4세 아동들은 반사회적 거짓말은 잘 이해한 반면, 선의나 유희적 거짓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박영아(2008)에서 6세 아동들의 경우 반사회적 거짓말은 잘 이해했지만, 선의나 유희적 거짓말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반사회적 거짓말은 보통 거짓말로 지칭되는 것으로 아동들에게 가장 익숙한 거짓말의 형태이기에 어린 아동들도 쉽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을 감추는 선의의 거짓말이나 의사소통의 흐름이나 분위기 파악을 필요로 하는 유희적 거짓말은 상대적으로 덜 친숙하고 더 높은 차원의 인식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령기가 되어야 그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하여 5세, 6세, 7세 모두 세 유형의 거짓말을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7세의 경우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5세와 6세보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판단을 적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ussey(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Bussey에서 4-11세 아동들은 세 유형의 거짓말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판단했지만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정적 판단을 다소 적게 보였다. 또한 박영아(2008)나 선미정(2005)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박영아의 연구에서 6세와 8세 아동들은 세 유형의 거짓말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10세 아동들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고, ‘보통이다’라는 반응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선미정의 연구에서 5~9세 아동들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반사회와 유희적 거짓말에서는 부정적 판단을 했다. 다소 차이는 있

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나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적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성인들이 선의의 거짓말이나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아동들의 판단은 성인들의 판단과는 대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거짓말에 내재된 의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에 내재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 거짓말의 경우 그 안에 내재된 의도(예, 다른 사람을 속이려 했다)가 부정적이기에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판단되지만, 선의의 거짓말(예,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다)나 유희적 거짓말(예,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 했다)에 내재된 의도는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서의 발달적 변화는 내재된 의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의도는 아주 어린 연령부터 이해가 가능한 마음의 구성요소이지만(이현진, 2009; Baron-Cohen, 1995; Bloom, 2000; Butterworth, 1991; Meltzoff, 1995),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Moses(2001)는 의도의 동기적 요소(motivational aspect)와 인식적 요소(epistemic aspect)를 구별하며, 의도의 동기적 요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해되지만 인식적 요소에 대한 이해는 다소 늦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의도의 동기적 요소만을 이해하는 어린 아동에게 행위는 바람의 충족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것이기에 이들에게 바람과 의도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동은 의도를 믿음과 관련된 인식적 요소로 이해하게 된다. 이때가 되면 아동은 의

도를 바람과 구별하고, 바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행동에 관여하게 됨을 이해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의도의 복잡한 개념 발달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행동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벌을 피하고 싶은 바람의 충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반면에 선의의 거짓말은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은 바람의 충족과도 관련되지만, 여기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 또한 유희적 거짓말은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유희적 거짓말도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이 선행될 것을 요구한다. 요약하면, 선의의 거짓말이나 유희적 거짓말은 바람의 충족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따라서 의도의 인식적 요소를 이해하는 시기에 선의의 거짓말이나 유희적 거짓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이해를 근거로 도덕적 판단이 가능해 질 것이다. 아동들이 선의의 거짓말이나 유희적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거짓말에 내재된 의도의 인식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짓말에 대한 정서반응에서 주목할 점은 5세와 6세 아동이 모든 유형의 거짓말에 대해 많이 기쁘다는 긍정적 정서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7세 아동들은 모든 유형의 거짓말에서 긍정적 정서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인은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기쁘다는 긍정적 정서반응을 보였지만,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기쁘지 않다는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이면서 이들의 반응과 대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대비된다. Bussey(1999)와 박영아(2008) 그리고 선미정(2005)에서는 모두 반

사회적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한 Bussey나 박영아의 연구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나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도 긍정적 정서 반응을 적게 보였다. 이와 같은 다른 연구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차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어린 아동들에게 기쁘다는 정서 반응을 한 이유를 물었을 때 보인 반응(예, 동생이 컵을 깬다고 거짓말 한 경우,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때문에 기쁘다. 양치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 양치질을 안 해도 되서 기쁘다) 들은 ‘행복한 위반자 현상(happy victimizer phenomenon)’ 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Arsenio, 1988; Arsenio & Kramer, 1992; Keller, Gummerum, Wang, & Lindsey, 2004; Nunner-Winkler & Sodian, 1988). 행복한 위반자 현상은 도덕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을 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긍정적 정서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8세 이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도덕적 위반 행위(예, 내가 한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동)와 바람의 충족(예, 타인이 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여 혼나지 않음)이라는 갈등적 상황에서, 어린 아동들은 바람이 충족되면 도덕적 위반 행위와 상관없이 긍정적 정서를 보고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나 도덕적 판단은 어린 아동들도 나이든 아동이나 성인과 비슷한 정도의 수행을 보였다. 하지만 선의나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나 도덕적 판단은 7세에도 완전하지 않았다. 이러한 거짓말의 이해나 도덕적 판단이 언제 가능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조금 더 나이든 아동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적 반응과 관련하여서, 어린 아동들이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박영아 (2008).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및 정서 반응의 발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079-1091.
- 선미정 (2005). 의사소통 맥락에 따른 아동과 어머니의 거짓말에 대한 태도의 차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손은경 (2001). 진실과 거짓말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도덕적 판단 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남원 (1998). 거짓말에 관한 칸트의 논의. *밀양산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6, 27-42.
- 이현진 (2009). 한국 아동에서 살펴본 바람, 의도, 정서, 사회적 규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18.
- Arsenio, W. F. (1998).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situational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Child Development*, 59, 1611-1622.
- Arsenio, W. F., & Kramer, R. (1992). Victimization and their victims: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mixed emotional consequences of mor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3, 915-927.
- Badenes, L. V., Estevan, R. A. C., & Bacete, F. J. G. (2000). Theory of mind and peer rejection. *Social Development*, 9, 271-283.
- Baron-Cohen, S. (1995). *Mindblindness: an essay on autism and theory of mind*. Cambridge, MA: MIT Press.
- Bloom, P. (2000). *How children learn the meanings of words*. Cambridge, MA: MIT Press.
- Bok, S. (1978). *Lying: moral choice in public and private life*. New York: Pantheon Books.
- Bradshaw, J. (1990). *Home 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New York: Bantam Books.
- Bretherton, I., & Beeghly, M. (1982). Talking about internal states: the acquisition of an implicit theory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906-921.
-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 1338-1347.
- Bussey, K. (1992). Lying and truthfulness: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 *Child Development*, 63, 129-137.
- Butterworth, G. (1991). The ontogeny and phylogeny of joint visual attention. In A. Whiten (Ed.), *Natural theories of mind*. Blackwell Publishing.
- Carpenter, M., Akhtar, N., & Tomosello, M. (1998). Fourteen- to 18-month-old infants differentially imitate intentional and accidental actions. *Infants Behavior and Development*, 21, 315-330.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Vol. 3): *Speech Acts*(pp.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Happé, F. G. E. (1994). An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of story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by able autistic, mentally handicapped, and normal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4*, 129-154.
- Keller, M., Gummerum, N., Wang, X., & Lindsey, S. (2004). Understanding perspectives and emotions in contract violation: development of deontic and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74*, 614-635.
- Kuhlmeier, V., Wynn, K., & Bloom, P. (2003). Attribution of dispositional states by 12-month-olds. *Psychological Science*, *14*, 402-408.
- Lee, K., Cameron, C. A., Xu, F., Fu, G., & Board, J. (1997).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s evaluations of lying and truth tell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pro- and antisoci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8*, 924-934.
- Meltzoff, A. N. (1995). Understanding the intentions of others: re-enactment of intended acts by 18-month-ol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1*, 838-850.
- Moses, L. J. (2001). Some thoughts on ascribing complex intentional concepts to young children. In B. F. Malle, L. J. Moses, & D. A. Baldwin (Eds.), *Intentions and intentionality: foundations of social cognition*(pp. 69-83). Cambridge: The MIT Press.
- Newton, P., Reddy, V., & Bull, R. (2000). Children's every deception and performance on false-belief task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97-314.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 1323-1338.
- Nyberg, D. (1993). *The varnished truth: truth-telling and deceiving in ordinary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ck, M. S. (1978). *The road less traveled: a new psychology of love, traditional values, and spiritual growth*.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ment of child*. London: Kegan Paul.
- Premack, D., & Premack, A. J. (1997). Infants attribute value to the goal directed actions of self-propelled object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9*, 848-956.
- Siegal, M., & Peterson, C. C. (1998).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lies and innocent and negligent mistak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332-341.
- Siegal, M., & Peterson, C. C. (1996). Breaking the mold: a fresh look at children understanding of questions about liars and mistake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 322-344.
- Strichartz, A. F., & Burton, R. V. (1990). Lies and truth: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Child Development, 61*, 211-220.
- Sweetser, E. E. (1987). The definition of lie: an examination of the folk models underlying a semantic prototype. In D. Holland (Ed.),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pp. 43-6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per, S., & Valtin, R. (1992). Children's understanding of white lie. In R. J. Watts, S. Ide, & K. Ehrlich (Eds.), *Politeness in language: studies in history, theory, and practice*(pp. 23-251).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1차 원고 접수: 2012. 1. 15

수정 원고 접수: 2012. 2. 11

최종게재결정: 2012. 2. 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of Different Types of Lies, Moral Judgement, and Emotional Reactions in Korean Children

Eun-Yeong Gwon Hyeonji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children's understanding, moral judgment, and emotional reactions about three different types of lies(i.e. antisocial lies, white lies, and trick lies) in Korean children. Participants were eighty five-year-old, six-year-old and seven-year-old Korean children and adults(20 for each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understood antisocial lies better than white lies and trick lies. But understanding of the inherent intention in lying stories, like the white lies or trick lies, required the understanding of cognitive epistemic state. There were differences of children's moral judgment for lies according to age and lie types. Younger children(five- and six-year-old) treated all types of lies as being bad. On the other hand, seven-year-old treated antisocial lies and trick lies as being bad, but white lies as being good, while adults treated antisocial lies as being bad, but white lies and trick lies as being good.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children made a mistake in inferring negative emotions from white lies and trick lies and in inferring positive emotions from antisocial lies.

Keywords: antisocial lies, white lies, trick lies, moral judgments, emotional reactions

부 록

거짓말 유형	내 용
반사회적 거짓말	컵 인수가 집 안에서 놀다가 컵을 깨뜨렸어. 엄마가 오셔서 누가 깨뜨렸냐고 물어보자, 인수는 동생을 가리키며 “제가 깨뜨리지 않았어요. 윤수가 깨뜨린 거예요.” 라고 말했어.
	크레파스 다영이는 언니에게 물어보지 않고 언니 크레파스를 학교에 가져가서 잃어버렸어. 언니가 다영이에게 크레파스를 못 보았냐고 물어보자 다영이는 “모르겠어.” 라고 말했어.
	양치질 준호는 잠자리 가기 전에 양치질을 하지 않았어. 아빠가 준호에게 양치질을 했는지 물어보자, 준호는 “네,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았어요.” 라고 말했어.
선의를 거짓말	빵 할머니께서 나현이에게 빵을 만들어주셨어. 그런데 빵을 먹어본 나현이는 빵이 너무 맛이 없다고 생각했어. 할머니께서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자 나현이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어.
	선물 재석이는 생일 선물로 로봇을 받고 싶었어. 그런데 아빠가 책을 선물로 주셨어. 아빠가 재석이에게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자 재석이는 “정말 받고 싶었던 선물이었어요.” 라고 말했어.
	안경 미정이가 학교에 안경을 끼고 왔어. 그런데 현수는 그 안경이 미정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미정이가 현수에게 자신의 안경 낀 모습이 어떠냐고 물어보자 현수는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라고 말했어.
유희적 거짓말	택배 소희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노크소리가 났어. 엄마는 소희에게 현관에 누가 왔는지 보고오라고 했어.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어. 소희는 “엄마, 택배 아저씨가 커다란 짐을 가지고 왔어.” 라고 말했어.
	거미 호영이는 아빠와 함께 공원에 산책하러 갔어. 바람이 불어서 아빠의 등에 나뭇잎이 떨어졌어. 아빠가 등에 뭐가 떨어졌는지 물어보자 호영이는 “아빠 등에 거미가 있어요.” 라고 말했어.
	다람쥐 헤민이와 명수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 명수가 옆에 있는 공을 멀리 굴러 보냈는데, 헤민이는 무엇이 지나간 것만 인듯 보았어. 헤민이가 명수에게 금방 지나간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보자 명수는 “다람쥐야, 다람쥐가 지나갔어.” 라고 말했어.

